

## 내러티브 활용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적용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김 영 순\*\* · 오 영 섭\*\*\*

본 연구의 목적은 내러티브를 활용한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예비임상 치료사의 자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Rita Charon의 서사의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여 인문융합치료학 교수모형을 도출하고 15주차를 5단계로 구분한 구체적인 교수안을 구성하여, I대학교 대학원의 인문융합치료학 전공 수업에 적용하였다. 본 수업에서 활용한 내러티브의 원자료는 이혼과 자립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을 인터뷰한 전사록이다.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를 채택했고, 연구참여자들은 수업을 수강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며, 이들의 성찰일지 및 수업과제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의 힘과 내러티브의 본질을 이해하였다. 둘째, 전개 1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 내담자의 심리에 대한 유사성과 특이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셋째, 전개 2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조별활동으로 연구와 토론을 하면서 소논문이라는 결과물을 성취하고 치료사 간의 연대감을 경험하였다. 넷째, 정리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배경지식이 확장하였다. 다섯째, 성찰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의 서사능력의 성장을 확인하고 학문공동체 및 예비 상담사 자조모임과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의료인, 임상치료사 및 상담사, 연구자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사례와 모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내러티브,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학습자경험, 서사의학

논문 접수: 2020/01/29 수정본 접수: 2020/02/29 게재 승인: 2020/03/20

\* 본 연구는 2019년 인하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인하대학교 BK21다문화교육사업팀 연구교수 (교신저자: yesoh@hanmail.net)

## I. 서론

인문학의 기본 요소인 서사 즉, 내러티브는 이제 인문학을 넘어서 산업,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되고 변용되고 있다(김영순, 2011). 이러한 추세는 ‘서사적 전환’(narrative turn)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현상이다. 내러티브는 상담 및 심리치료, 더 나아가서 의료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하였다. 이미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와 서사의학(narrative medicine)이라는 학문 분야가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내러티브와 치료가 융합하여 임상 및 교육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내담자에게 적용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8).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의과대학과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대학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와 치료 융합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에서는 예비 의료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야말로 환자와 소통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지식과 기술만큼이나 서사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의과대학들에서는 서사의학 혹은 의료인문학 등의 과목을 통해서 예비 의료인들의 서사적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둘째,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융합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내러티브를 다양한 배경의 내담자에게 임상치료에서 활용하고 있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심리치료는 문학치료, 이야기치료, 시 치료, 글쓰기 치료, 영화 치료, 연극치료 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건국대와 경북대는 문학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강원대는 이야기치료 및 글쓰기 치료를 중심으로 이론개발 및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과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대학이 각각 서사를 활용하는 초점이 상이하다. 의과대학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있어서 의료인의 서사능력에 주목한다. 반대로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대학은 내러티브의 임상적 활용에 주목한다. 이는 양 교육기관이 지닌 특성에서 단점을 각각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과대학에서는 내러티브 자체의 치유적 능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며,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임상치료를 양성하는데 구체적인 교수-학습모형이 미흡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양 교육기관들은 내러티브를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서로의 강점을 배워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내러티브를 활용한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예비 임상치료사의 자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사의학의 선구자인 Rita Charon의 서사의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여 인문융합치료학 교수모형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교수안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모형을 I대학교 대학원 인문융

합치료학 전공의 실제 수업 ‘이야기 채록과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이 수업을 수강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제출한 성찰일지 및 수업과제물을 분석하여 수강생들이 예비임상치료사로서, 연구자로서 성장에 대한 학습활동 경험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에 인문융합치료를 개설하는 대학원에서 임상치료사와 연구자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사례와 모형으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서사의학(narrative medicine)은 의학, 인문학, 예술 등의 학제간 분야로서, 질병에 관한 내러티브를 경청하고, 인정하고, 해석하고, 공감하는 역량을 배양한다. 국내에서 서사의학은 주로 ‘이야기치료’, ‘내러티브 테라피’, ‘스토리텔링 치료’라 불린다. 특히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질적연구방법의 일종인 내러티브 탐구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내러티브를 의학이나 상담 분야에 활용한 연구는 드물다. Burns(2007), White(2004; 2007; 2011) 등의 한국어 번역서와 이민용(2017)에 의한 단행본 정도로 손에 꼽을 만큼 소수연구 분야이다. 그나마 내러티브를 활용한 상담 및 치료자 양성을 위한 수련 과정의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Columbia University(2019)에서 발췌한 서사의학에 대한 교육훈련은 내러티브와 의료사회의 접점을 보여 준다. 즉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종교사제 뿐만 아니라 상담 및 치료 현장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사능력을 발전시킴으로서 그들의 환자와 내담자들에게 의료적 효과 및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사의학의 선구자인 미국 콜럼비아대 의과대학 Rita Charon 교수의 내러티브 교수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Charon의 모형은 주의, 재현, 연대라는 3가지 유형의 서사능력(narrative competence)에 초점을 두고 있다(Charon, 2007).

첫째, 주의(attention)은 치료사가 내담자의 아픈 현실에 함께하고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다. 구술사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터뷰기법에서 면접관이 면접대상자 즉, 구술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판단을 중지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술자와 구술에 주의를 집중한다. 마찬가지로 임상현장에서 내담자에 대한 주의집중은 치료사로 하여금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 침묵·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육체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들어가게 한다. 이러한 주의집중은 시와 소설 등의 문학작품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사의 주의집중 향상을 위해서 심층적인 내러티브 읽기훈련이 요구된다.

둘째, 재현(representation)은 치료사가 내담자가 구술한 내러티브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이야기들이 내담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내담자

들이 들려주는 내러티브는 논리정연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보통 혼란스럽고 복잡하기 그지없으며 두서가 없는 비논리적, 비형식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치료사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재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재현은 서사적 글쓰기를 통해서 시작된다. 치료사는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쉬운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서사적 글쓰기를 통해서 듣게 될 수 있고(to be heard) 보여질 수(to be seen)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치료사의 글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내담자의 내러티브에 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재현은 독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내러티브에 소환함으로써, 치료사-내담자-독자 사이의 치유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현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연결, 인정, 연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현을 위해서 치료사는 서사적 글쓰기 훈련이 요구된다.

셋째, 연대(affiliation)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서사능력인 주의집중과 재현의 결과이면서, 서사능력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Charon(2001)은 치료사가 형성하는 다양한 층위의 외적·내적인 인간관계를 설명한다. 외적으로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공감적 관계, 치료사와 동료 치료사 사이의 전문성 개발의 관계, 치료사와 사회 사이의 신뢰 관계,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 치료사 자신이 자신의 내면과 연결하여, 치료사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연대는 이러한 내적·외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감과 동정과 같은 치료사의 정서적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대는 참여관찰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는데, 주로 미학 연구 혹은 영화 감상 등의 학습수단을 통해서 치료사는 관찰자로서 아픔이 내담자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증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의-재현-연대로 구성된 서사능력은 치료사로 하여금 개인적이면서 공적인 의미를 가진 아픔의 내러티브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수-학습모형의 기본 요소가 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사의학의 기본 요소들은 구술자들의 구술과 연구자의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질적연구의 기본 요소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두 분야는 모두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서사학과 질적연구분야에 대한 학제간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황임경, 김호연, 2013). 본 연구에서 Rita Charon의 서사학을 기반으로 구성한 인문융합치료학 교수-학습모형의 기본 요소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내러티브를 활용한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서사의학			
서사 능력	주의	재현	연대
관련 기술	읽기	쓰기	관찰
관련 학습	문학작품 읽기	성찰적 글쓰기	미학연구 및 영화감상
	↓	↓	↓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교수 내용	읽기	쓰기	참여
	전사록의 분석적 읽기	창의적, 성찰적 글쓰기	성찰, 토론 및 발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은 서사의학에서 제시하는 주의-재현-연대의 서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인 읽기, 쓰기, 관찰에 주목하여 다음 3가지의 내용을 가르치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전사록의 분석적 읽기이다. 전사록은 질적연구의 과정에서 면접자 즉, 연구자가 면접대상자, 즉 연구참여자를 인터뷰 내용, 즉 내러티브를 전사한 것이다.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사록을 제시하고 분석적으로 읽도록 훈련한다.

둘째, 전사록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글을 쓰는 것이다. 전사록은 연구참여자의 시간, 공간, 사회문화적 배경, 인지적, 정서적 내용이 뒤엉켜 있다.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로,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글쓰기를 하도록 훈련한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은 매주의 수업참여 경험을 성찰하는 일지를 기록함으로써 연구자와 임상치료사로서의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참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이다. 수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개인별로, 팀별로 글쓰기를 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예비치료사 및 연구자로서 내담자에 대하여 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동료치료사와 협력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협동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상담사 혹은 심리치료사의 발달 및 성장에 대한 국내외의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Fleming(1953)은 수퍼비전의 영역에서 상담자발달을 제시하였다. Fleming(1953)은 상담사가 모방학습, 교정학습, 창의학습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보았다. Hogan(1964)은 상담사는 수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 의존, 의존-자율성의 갈등, 조건적 의존,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4개의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수퍼비전 영역을 넘어서 상담사의 전생애적 발달 관점으로 연구한 Loganbill, Hardy와 Delworth(1982)는 상담사가 정체기, 혼란기, 통합기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Skovholt와 Rønnestad(1992)는 상담사가 인습적 단계로부터 개별성 보존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8개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

다.

국내의 상담 분야 연구를 살펴보면, 김계현(1992)은 상담기술, 알아차림, 진단 및 처치, 전문성, 평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자교육단계 모델을 통하여 상담사가 실습준비기, 실습수련기, 자기수련기의 3단계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허재경(2009)은 상담심리전공 대학원생들이 성찰중심의 슈퍼비전모형을 통하여, 적응단계, 모델링 단계, 기술발달 단계, 정체성 발달 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미화(2017)은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발달단계를 몰입, 자기이해 및 수용, 통합의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주로 슈퍼비전이라는 맥락에서 상담자의 발달과정과 특성을 다루었다(Skovholt & Rønnestad, 1992; 강신호, 2009). 그리고 해외 의과대학에서 진행되는 의료인문학 수업모형 및 학생성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지만(Arntfield et al., 2013; DasGupta & Charon, 2004; Kissler et al., 2016; Small, Feldman, & Oldfield, 2017), 국내 의료인문학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시론적이고 탐색적인 연구에 그쳐있다(맹광호, 2007; 반재유, 예병일, 2012; 안정희 외, 2008; 황임경, 2013).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구체적인 대학원의 전공수업 모형과 예비 상담사의 발달과정에 관한 경험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I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 전공은 학과간 협동과정으로서 2018년 2학기에 일반대학원에 신설되었다. 인문융합치료학 전공의 목표는 문학, 언어, 음악, 미술, 연극 등 인문학의 제반분야를 융합적·학제적으로 심리치료에 활용하여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여 전인적인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수진은 미술, 음악, 문학, 체육, 교육, 간호, 상담, 연극, 문화 등을 전공한 다양한 분야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제적 연구와 교육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수업은 2019-1학기에 개설된 ‘이야기의 채록과 분석’이라는 수업이며, 본 수업을 교수자 2명이 공동으로 강의하였다. 이 수업을 위해 기획한 강의계획은 위에서 제시한 인문융합치료학 교수모형의 기본 요소인 읽기, 쓰기, 참여를 반영하여 각 단계 및 주차별로 다음 <표 2>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단계로 구성된 15주에 걸친 수업을 통해서 읽기, 쓰기, 참여라는 훈련을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2> ‘이야기의 채록과 분석’ 강의계획

단계	주차	강의내용
1	도입	1주 오리엔테이션
2	전개 1	2주 전사록의 분석적 읽기와 다시 쓰기
	(전사록 분석)	3주 전사록의 분석적 읽기와 다시 쓰기 2
		4주 특강: 레비나스의 철학이론
3	전개 2	5주 인문융합치료 학위논문 사례발표, 전사록의 재구성 실습
		6주 전사록의 범주화 실습, 이야기치료 이론 및 실제
	(전사록 범주화)	7주 전사록의 범주화 실습 2
		8주 중간고사과제(팀별 소논문 및 성찰일지 쓰기)
		9주 중간과제 점검, 특강: 문학치료
4	정리	10주 질적연구자료분석법
		11주 팀별 소논문 발표
		12주 특강: 미국과 싱가포르의 다문화교육
		13주 팀별 소논문 발표
5	성찰	14주 학술집담회
		15주 기말고사과제(개인별 생애담, 팀별 소논문, 성찰일지 쓰기)

첫째, 도입단계는 1주차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과제를 소개하고 학습자료인 전사록을 제공한다. 전사록은 한국이주, 결혼, 이혼, 자립 등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경험하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7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인터뷰한 자료이다. 이 전사록은 교수자의 연구팀에서 2018년 3월부터 8월간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면담연구를 수행한 기록물이다.

둘째, 전개 1단계는 2-5주차 수업으로서, 전사록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2주차에는 읽기와 쓰기훈련을 위하여 질적연구 전사록 분석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제공한다. 3주차에는 전사록을 분석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고 양식에 맞추어 전사록을 분석한다. 4주차에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연대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타자에 대한 철학으로 유명한 레비나스의 철학이론을 특강을 통해서 다룬다. 5주차에는 교수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결혼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분석틀로 재구성한 글을 검토하고 코멘트를 한다.

셋째, 전개 1단계는 6-9주차 수업으로서, 전사록을 범주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6주차에는 이야기치료의 이론과 실재를 다루며, 전사록 범주화 실습을 진행한다. 7주차에는 6주차에 이어서 전사록 범주화 실습을 진행한다. 8주차는 중간고사 과제로 생애담 및 소논문 형식의 개인별, 팀별 글쓰기과제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전사록을 시간적 순서로 기술된 생애담, 주제별로 구성한 소논문을 과제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현실에 공감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9주차에는 중간고사 과제를 점검한다.

넷째, 정리단계는 10-13주차 수업으로서, 전사록 읽기와 쓰기 등의 서사능력을 심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10주차에는 질적 연구자료를 분석하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학습한다. 11주차에는 팀별 소논문을 발표한다. 12주차에는 이주민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강에 참여한다. 13주차에는 학생들은 개인별, 팀별 글쓰기 과제에 대하여 교수들의 코멘트를 받으며, 학생들은 교수들의 코멘트를 반영한 글쓰기를 통해서 더 나은 글쓰기를 훈련받는다.

다섯째, 성찰단계는 14-15주차 수업으로서, 한 학기동안 학습한 내용을 성찰하는데 초점을 둔다. 14주차에는 인문융합치료학 전공생의 학술집담회를 통해서 학습활동과 과제 등을 개인별로 구두발표를 한다. 15주차에는 기말고사로서 매주 수업에 대한 자기성찰일지, 개인별 생애담 및 팀별 소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연구자로서, 임상치료사로서 성장을 확인한다.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성된 본 수업에는 모두 6명의 대학원생이 수강하였으며, 이 대학원생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소속 전공	차수	경력
연구참여자 1	남	인문융합치료	박사 2차	상담심리 석사
연구참여자 2	여	인문융합치료	박사 1차	상담심리 석사
연구참여자 3	여	인문융합치료	박사 1차	상담심리 석사
연구참여자 4	여	다문화교육	박사 2차	교육행정 공무원
연구참여자 5	여	다문화교육	박사 2차	다문화관련 직무경험
연구참여자 6	여	다문화교육	석사 2차	중국 유학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에 입학한 지 1년 이내의 1-2차 학기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로서 인문융합치료학 전공에 대해서 생소하다. 하지만 이들은 입학 전에 상담에 관련된 교육 및 직무 경험이 있거나, 본 수업의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강신청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교수자 1인의 수업일지와 참여 대학원생 6명의 과제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수업일지에는 각 주차별로 교수자의 교수내용, 교수-학생들과 주요 대화, 학생들의 발표내용, 학생들의 태도와 반응 등이 참여관찰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둘째, 과제물에는 전사록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개인별 과제인 생애담 6편, 자기성찰일지 6편, 팀별 과제인 주제별 소논문 2편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분량은 생애담이 편당 평균 A4 30매, 자기성찰일지가 개인당 평균 20매, 소논문이 2편이 각 15 매 정도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자 2인이 교수안과

비교하여 학습목표의 성취 여부를 각각 측정하고 학습활동에 나타난 경험의 내용을 분석한 후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공동교수자의 수업일지와 학생의 과제물을 분석하고 학기말 집담회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문융합치료학 교수모형이 수업에 적절하게 적용되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참여 대학원생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V. 교수-학습 모형 적용 사례 분석

이번 장에서는 앞 선 2장에서 제시한 읽기-쓰기-참여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에 기초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한 13주차의 교수안을 작성하였다. 그렇지만 기술의 합리성을 위하여 본 장에서 교수안을 5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각 단계별로 참여 대학원생의 학습경험을 기술하여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 1. 도입 단계

도입단계에서는 교수자는 ‘이야기채록과 분석’이라는 수업목표와 진행방식을 수강생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교수자는 이야기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소개하고, 이야기가 인문융합치료의 핵심개념임을 강조하였다. 교수자는 한 학기동안 사용할 실습교재로서 결혼이주여성 7인의 전사록, 생애담 요약양식, 전사록 분석양식을 제공하였으며, 이것을 활용하여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에서 읽기와 발표 실습을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전사록을 읽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으로 상담 및 치료과정에서 이야기를 채록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이야기가 치료의 핵심요소임을 상기하도록 하였다. 다음 아래의 <표 4>는 도입단계 교수안이다.

도입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내러티브의 치유적 활용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본 수업의 교수방식에 흥미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임상현장에 직접 나가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다. 교재로 제공된 전사록은 임상현장의 기록이 아닌 질적연구 인터뷰의 기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치료적인 관점을 가지고 전사록을 읽으면서 전사록 안에 담긴 내용이 내담자의 상처와 치유에 대한 내러티브로 환원될 수 있음에 신선함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참여 3의 경우 인터뷰 전사록을 읽으면서 이주여성의 생애담에 관한 흥미와 아울러 글의 힘, 즉 내러티브의 기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표 4> 도입단계 교수안

구분	내용		
주제	내러티브의 본질과 활용		
목표	본 수업 목표와 방식을 이해함		
교재	1. 전사록: 이혼과 자립경험을 가진 결혼이주여성 7인 사례 2. 생애담 요약양식 3. 전사록 분석틀양식(6단계: 결혼동기-결혼생활(남편, 시댁, 자녀)-이혼-자립)		
과정	활동내용		
1. 도입	1. ‘이야기’란 무엇인가 - 사전적 정의와 본인의 정의, 키워드 찾고 토론하기 2. 이야기를 활용한 상담 및 인문융합치료의 전망 3. 이야기 채록의 일반적인 과정과 본 수업방식의 차이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2. 활동	①읽기	②참여	③쓰기
	개인별로 전사록 1편을 분석적으로 읽기	개인별 생애담을 결혼동기-결혼생활-이혼-자립의 순서로 스토리텔링하여 발표하기	과제로 제시
3. 정리	1. 전사록 분석을 통해서 역으로 이야기를 채록하는 방법을 배우기 2. 말하기와 쓰기의 중요성		
	1. 스토리텔링으로 발표한 생애담 다시 쓰기 과제 2.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분석틀로 재구성하여 쓰기 3. 수업내용에 대한 성찰일지 작성		

“처음에는 흥미로 집어 들었던 인터뷰 자료가 어느새 한 사람의 인생으로 다가와 있음이 느껴졌다. 가끔은 어눌한 한국어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여러 번 읽어보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삶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글의 힘인가 보다. 글이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전달하기에 충분한 도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글로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오감세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고체계라는 생각이 든 하루였다.”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의 경우 상담에 있어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담자의 이야기가 삶의 어려움과 좌절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경험을 갖게 하였다. 그러므로 생애담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수업을 통해 이야기가 상담의 중요한 기법이고, 연구참여자 4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삶의 어려움과 좌절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음으로 생애담 연구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수업시 참여자 7

의 생애담을 발표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고단함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6은 내러티브의 본질을 이주여성 생애담의 전사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역순학습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야기, 즉 내러티브의 정의와 본질이 무엇인지, 타인의 내러티브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수업이 역순학습, 즉 선행 연구자들이 진행했던 연구를 해체하고 내가 직접 조립(분석)해보고 이를 다시 그들의 것과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참여자 6)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이주여성의 생애담을 담은 전사록의 읽기와 분석을 통해 이야기의 힘과 내러티브의 본질을 이해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비록 연구참여자 6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수집한 생애담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문서화된 전사록을 통해 상담에 있어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러티브의 내적 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2. 전개 1 단계

전개 1 단계에서는 읽기와 쓰기훈련을 위한 내러티브 분석능력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교수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1주차에서 과제로 제시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담을 구두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치료사이자 질적연구자의 글쓰기가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가치중립)을 확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담자의 아픔과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가치개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교수자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였다. 교수자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국제결혼가정해체요인에 있어서 남성의 관점과 여성의 관점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상반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읽기와 쓰기에서 관점의 중요성을 전달하였다.

학생발표가 마친 후에 교수자는 치료사에게 글쓰기와 발표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내담자가 구술한 구술은 과편적 기억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하나의 내러티브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러티브 재구성능력은 치료사에게 필수임을 교수자는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읽기, 쓰기, 발표 등의 반복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후에 교수자는 학생을 2개의 조로 구성하여 생애담 단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각 조마다 생애담 2개 단계의 과정을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을 조장이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교수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이 해체거나 가정해체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을 상담하거나 심리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분석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축적됨으로써 치료사는 임상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내담자는 자신과 같은 유사사례가 있음으로 인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및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자기성찰과 성찰일지쓰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교수자는 치료사가 들고 있는 칼날의 한 면은 내담자를 치료하는 것이며, 칼날의 다른 한 면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치료사·연구자의 자기성장을 위해서 수업내용에 대한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강조하였다. 다음 <표 5>는 전개 1단계의 교수안이다.

<표 5> 전개 1단계 교수안

구분	내용		
주제	내러티브의 분석		
목표	분석적 읽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숙달함		
교재	1. 전사록 2. 생애담 과제물 3. 결혼이주여성 이혼에 관한 연구동향		
과정	활동내용		
1. 도입	1. 사실에 근거한 글쓰기와 연구자의 언어로 글쓰기의 차이 비교 2. 글쓰기에서 가치중립과 가치개입의 차이 비교 3. 내러티브의 재구성능력의 중요성 4.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대한 연구동향: 연구관점의 중요성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2. 활동	①참여	②읽기	③쓰기
	개인별 생애담의 다시쓰기 과제발표	생애담의 단계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적으로 읽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기
3. 정리	1. 치료사와 질적연구자의 자세: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 2. 자기성찰의 중요성 3. 읽기-쓰기-참여 훈련의 중요성 4. 전사록 및 분석적 글쓰기의 활용방안		
과제	성찰일지		

전개 1 단계에서 연구참여자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발표와 토론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전사록에 기록된 내담자 아픔의 내러티브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내담자들 사이의 유사현상에 대하여 지식을 상담사·치료사로서의 역량과 연결시키고 있었다. 또한 내러티브

를 분석하는 읽기와 쓰기의 과정을 실습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교수자가 설계한 교수모형에 적용하고 이러한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전사록을 분석하면서, 내담자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담의 일련의 과정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면서 내러티브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담을 요약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틀에 맞춰 나누었다. 공통점은 참 많이 나오지만 차이점을 찾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느껴졌다. 읽다보니 내가 맡은 참여자에 대해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삶이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찾아가는 과정 속에 7명의 참여자들의 패턴이 느껴지게 되었다. 누군가 이것이라고 알려줘서라기보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 과정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면 생애담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다소 느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 훈련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변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 같다.”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3은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내담자들의 공통적 현상을 통해서 사회현상 분석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들어가 마치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중략)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나름 참 닳은꼴이 많다고 느껴졌다. 각자 제각기 다른 인생들인데 이혼으로 흘러가는 그들의 인생에는 꽤나 큰 닳은꼴들이 있었다. 닳은꼴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라고도 이해가 된다. 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회적으로 분석해서 더 이상은 그런 닳은꼴로 인한 상처가 재발하지 않았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는 내러티브의 분석 과정에서 교수자가 강조한 관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예비치료사로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원생들이 연구참여자 생애담 요약에 대해 발표하였다. 요약문을 읽다 보니 참여자의 인생에 대해 감정입이 되어 그들의 삶의 노고에 가슴이 아프고, 한국 남성의 행태에 분노가 느껴졌다. 그러나 단순한 공감에서 벗어나 관점을 찾아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하는 분석능력이 있어야 이야기 치료가 가능함을 배웠다.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파편화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즉, 참여자가 자신의 동기와 처지를 생각하며 이혼이 남편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고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앎으로서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4)

수업의 전개 1단계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결혼-이혼-자립에 이르는 일련의 생애담을 단계별로 분석하면서, 어떤 사회현상, 즉 이혼과 자립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내담자의 심리에 대한 유사성과 특이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내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치료사의 역량과도 연결시키면서, 내러티브에 대한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전개 2 단계

전개 2단계 수업에서 교수자는 과제로 제시한 주제별 범주화에 대하여 교수자 본인의 범주화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의 범주화 과제를 점검하였다. 교수자는 생애사 및 생애담의 차이를 설명하고 생애사가 융합치료에 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수자는 문화기술지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교수자는 내담자를 진단하기 이전에 내담자의 삶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기술지의 유용함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교수자는 학생개인별 발표를 마친 후에 학생들을 2개의 조로 나누어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동기와 결혼생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과 자립을 소논문 형식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논문의 목차, 각 소논문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다음 아래의 <표 6>는 전개 2단계 교수안이다.

전개 2 단계에서 학생들은 학술적인 글쓰기가 어렵지만, 조별 활동을 통해서 협동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였다. 학생들은 조별활동을 통해서 글쓰기 각 영역을 맡아서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소논문이라는 공동목표를 이루어 간다는 성취감을 맛보았다. 연구참여자 1은 조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소논문이라는 형태로 연구결과가 집약되는 과정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신의 심리를 막막함에서 자신감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동기와 결혼생활을 주제로 4명이 모여 한 팀이 되어 작성하게 되었다. 기존에 계속 보고 작성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하던 걸 모으니 무언가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처음 생애담을 요약할 때도 이렇게 까지를 거라고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 다른 수업들을 들을 때는 소论문을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미리 겁이 나기도 하고 막막했는데 교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왔는데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언가 배우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다.” (연구참여자 1)

<표 6> 전개 2단계 교수안

구분	내용		
주제	내러티브의 범주화		
목표	생애사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협동학습을 통해서 소논문쓰기를 연습함		
교재	1. 전사록 2. 교수자의 주제별 범주화 예시 자료 3. 공동교수자의 강의안(이야기치료의 이론과 적용)		
과정	활동내용		
1.도입	1. 교수자가 수행한 주제별 범주화 자료 제시		
	2. 생애사와 생애담의 차이 3. 생애사 내러티브의 상담·치료적 의의와 활용 4. 문화기술지에 대한 소개		
2.활동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①참여	②읽기	③쓰기
	- 주제별 범주화과제발표 - 협동학습 2개조 구성	- 교수자의 주제별 범주화자료 읽기	- 조별 소논문에서 개인과제 쓰기
3.정리	1. 전사록 분석 내용을 종합하고 비교함		
	2. 조별 토론으로 마무리함		
과제	1. 소논문 과제 2. 성찰일지		

연구참여자 3은 인터뷰 전사록, 내담자들의 파편적인 내러티브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인상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소재의 내러티브일지라도 다른 주제의 연구로 내러티브가 범주화될 수 있음을 토론 및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사실 처음에는 이 수업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 채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으로만 생각했는데 수업이 화를 거듭할수록 하나의 소논문이 그려지는 느낌을 받는다. 오늘은 수업자료 내용으로 2개의 팀을 구성했다. 소재는 하나이지만 주제는 각기 다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 내가 속한 팀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동기와 결혼생활’이다. 네 사람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모이니 하나의 커다란 분석틀이 완성되었다. 물론 그냥 생긴 건 아니고 몇 주간의 고민 아닌 고민을 하다 보니 생긴 결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면 볼수록 논문처럼 그럴 듯하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흐뭇하다고 해야 할까? 이제 이 분석틀을 가지고 살을 붙이는 일들이 당분간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도 나름의 결심이 나를 웃음 짓게 만드는 것 같다.”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6은 수업참여경험을 함의적 질적연구라는 연구방법론과 연결시키고 있다. 질적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자들이 논의와 함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

출하는 과정은 바로 치료사와 동료 치료사 사이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럿이 함께 모여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글을 써 한 편의 논문을 만들어내는 것, 즉 합의적 질적연구(CQR)를 한다는 것이 아직 논문에 미숙한 저로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참여자 6)

전개 2단계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의 비논리적이고 비구조화된 내러티브를 함께 읽고 분석하고 범주화면서, 논리적이고 구조화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소논문이라는 결과물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문융합치료 교수-학습모형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치료사 간의 연대감을 경험하였다.

#### 4. 정리 단계

전개 2단계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수업목표를 달성하고 과제물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조별 소논문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하였다. 교수자는 제목, 이론적 논의,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목표와 동기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교수자는 질적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반복적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소개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자는 1주차 도입단계에서 언급하였던 인문융합치료학 분야의 전망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였다. 다음 <표 7>은 정리단계의 교수안이다.

정리단계에서 학생들은 소논문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론하지만, 소논문이 심화되면서 상담사로서의 지식이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교수자의 지도를 통해서 매우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연구자로서의 철학과 삶에 공감하면서, 치료사와 연구자로서 자신을 성찰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소수자로서의 내담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학이론이 심리학이론과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예비치료사로서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에 대한 지식이 확장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표 7> 정리단계 교수안

구분	내용		
주제	내러티브의 재구성 소논문 발표		
목표	학술적 글쓰기와 발표능력을 증진함		
교재	1. 조별 소논문 2. 강의안(질적연구자료분석법)		
과정	활동내용		
1. 도입	조별 소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논평 소논문 목차의 구조에 대한 소개		
2. 활동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①참여	읽기	쓰기
	- 소논문발표 및 토론 - 질적연구자료분석 실습	과제로 제시	과제로 제시
3. 정리	1. 관련 학술지의 투고 양식 및 마감일에 대한 소개 2. 인문융합치료학 분야의 전망 제시		
과제	1. 조별 소논문 심화 2. 성찰일지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과 자립과정에서 인정 투쟁이론과 정체성 형성의 이론을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 좀 더 고민해야겠다. (중략) 그동안 한 인간의 심적인 변화, 상담적 이론만을 보아왔던 나에게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네프의 인정 투쟁이론이 단순 사회학적인 이론이기 보다 상담의 기본적 이론인 대상관계이론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심리학과 사회학이 사회 속에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시작점이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6는 전사록을 분석하고 범주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설계와 진행 과정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자신이 수행한 다시 쓰기 연구결과물을 동료들의 연구결과물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성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는 실제 논문을 보면서 범주화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답을 내놓았다는 것이 신기했고, 역시 이런 게 질적연구의 매력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늘 O박사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수업시간에 전사자료를 분석해 분석틀을 만들고 소주제, 대주제로 범주화했던 모든 과정을 이론을 통해 다시금 복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4는 수업에서 교수자가 행복에 대하여 던진 질문을 생각하면서, 내담자를 치료하고 연구하는 치료사 및 연구자가 되기에 앞서서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서 성찰하였다.

“수업 중 교수님은 원생들에게 대학원 공부를 해서 행복하냐고 물으셨고, 행복하지는 않다고 답하는 우리들에게 우선 질적연구자가 스스로 행복해 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중략) 사실 박사를 처음 시작할 때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스트레스로 바뀌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귀한 이 시간들이 자아실현과 타인을 위한 발전으로 승화되도록 내 맘의 저울추를 행복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필요함을 되새기는 수업이었다.” (연구참여자 4)

정리 단계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배경지식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치료사로서, 연구자로서의 철학을 정립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여유와 성찰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5. 성찰 단계

성찰단계의 수업에서 교수자는 인문치료학전공 학술집담회로 마련하여 연구참여자들과 그 간 수행되었던 강의, 연습 등의 수업 전반에 걸친 경함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자는 사전에 학술집담회를 공지하여 본 수업을 취지와 진행사항을 미리 공지하고 수강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인문치료학 전공 대학원생, 다문화교육 전공 대학원생, 그 밖의 인문융합치료 전공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이 학술집담회에 참석하였다.

교수자 본인이 먼저 수업과정을 회고하면서 예비 상담사인 학생들이 내담자의 아픔에 공감적으로 이입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향후에 치료사로서 어떻게 내담자를 대면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수자는 조별로 향후 과제가 학술적인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학생 및 참석자들의 개인별 연구관심주제 및 건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다음 <표 8>은 성찰 단계 교수안이다.

성찰단계에서 학생들은 전사록을 읽고 분석하고 쓰고 토론하는 일련의 수업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치료사로서 연구자로서 성장을 위해서 참여하고 연대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을 통해서 서사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교수목표를 이해하였으며, 치료사 및 연구자로서 성장하였음을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1은 내러티브를 분석한 내담

자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글쓰기를 통해서 공감이 심화되고 치유적 효과가 있음을 경험하였다.

<표 8> 성찰단계 교수안

구분	내용		
주제	치료사로서의 성찰		
목표	본 수업 목표인 예비임상치료사의 서사능력 증진을 확인함		
교재	-		
과정	활동내용		
1. 도입	본 수업의 목표, 과정에 대한 회고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2. 활동	①참여	읽기	쓰기
	발표 및 토론	기말과제로 대체	기말과제로 대체
3. 정리	개인별 연구관심주제 및 건의사항		
과제	기말과제 제시		

"(중략) 정말로 좋았던 점은 자료를 맡았던 연구 참여자 3에 대해 애착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공감을 하고 몰입을 했다는 점이다. 스스로 공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느꼈었는데 전사록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점이 질적 논문의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중략) 생애담을 쓰는 것만으로 치유에 효과와 공감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신기하였고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다시금 작성한다면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작성하고 싶다."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는 다문화 배경 내담자를 내러티브를 통해서 만나면서 기존의 상담이론 지식을 넘어서 사고가 확장하고, 관점이 다양해진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및 치료의 중요성을 경험하였다.

"(중략)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였는데 여러 특강과 자료 분석을 통한 소논문 작성 등 한 학기동안 많은 과정을 경험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론의 틀을 하나 더 부수고 그 사고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결혼 이주여성들과 그 아이들에 대한 시각이 좀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며 앞으로 나의 연구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중략)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서로 연합과 격려가 됨을 이번 강의를 들으며 느꼈던 것 같다. 공동연구의 맛도 알게 된 것 같다."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6는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읽고 쓰고 토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학기동안 내담자가 마치 자신의 지인이 된 것 같은 감정어입이 되었다. 연구자

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종략)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 마치 그녀가 나의 지인이 된 것만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해오시던 학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이하 생략)" (연구참여자 6)

성찰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수업과정을 통해서 교수자와 동료들과 일종의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서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아픔을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치료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연합과 참여를 목표로 하는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에 부합하는 학습경험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V. 결론

국내의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료인들의 서사능력을 증진시키는 의료인문학이 형성되었으며,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대학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의 임상치료적 능력을 강조하는 인문치료학이 형성되었다. 향후에 전세계적으로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치료와 교육이 융합적이고 학제적으로 만나는 담론이 계속하여 발전되고 활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사능력을 가진 의료인, 치료사, 상담사, 연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원과정에서 인문융합치료학 교수모형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주의-재현-연대의 서사능력에 초점을 맞춘 Charon의 서사의학모형을 기반으로,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읽기-쓰기-참여로 구성된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수모형을 적용한 강의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일반대학원 인문융합치료 전공의 전공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였다. 또한 본 수업의 특징은 이혼과 자립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을 인터뷰한 전사록을 수업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본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사록과 같은 내러티브를 분석적으로 읽고, 학술적으로 다시 쓰고, 토론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수업의 목표는 참여 학생들의 서사능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소수자이자 타자인 내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치료사의 자질, 연구자로서 참여와 연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본 수업은 15주차의 수업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연구참여자들이 학습하도록 하였다. 첫째 단계는 도입단계로서,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내담자의 내러티브인 전사록을 수업자료로 제공하고 수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의 힘과 내러티브의 본질을 이해하였다. 둘째 단계는 전개 1단계로서, 내러티브의 분석적인

읽기와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내러티브를 분석능력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생애를 단계별로 분석하면서, 내담자의 심리에 대한 유사성과 특이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셋째 단계는 전개 2단계로서, 파편적인 내러티브를 논리적으로 범주화하여 소논문의 형식으로 쓰기를 연습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조별활동을 통해서 함께 연구와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소논문이라는 결과물을 성취하고 치료사 간의 연대감을 경험하였다. 넷째 단계는 정리단계로서, 한 학기 동안 작성한 소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적 글쓰기와 발표능력을 심화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배경지식이 확장하였다. 다섯째 단계는 성찰단계로서, 성찰일지 및 학술집담회를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치료사로서 연구자로서 연구참여자 본인의 서사능력의 성장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로 간에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치료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참여자들인 수강생들은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에 따라 설계된 수업과정에 참여하면서 서사능력이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상치료사 및 질적 연구자로서의 내담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역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참여와 토론, 조별과제를 수행하면서 상호간 협업능력도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연합과 참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인문융합치료 교수-학습 모형에 부합하는 학습경험을 하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문융합치료 혹은 서사의학을 가르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의료인, 임상치료사 및 상담사, 연구자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사례와 모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신호(2009). 집단상담자의 발달 특성 분석-박사과정에 있는 상담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김계현(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수퍼비전노형에 관한 복수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4(1), 19-53.
- 김영순(2011). **스토리텔링의 사회문화적 확장과 변용**. 서울: 북코리아.
- 노미화(2017). 가족상담사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맹광호(2007).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의 인문사회의학교육: 과제와 전망.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1), 5-11.
- 반재유, 예병일(2012). 의예과 인문학 교육에서 '치유하는 글쓰기'의 적용 예.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4(3), 189-196.
- 안정희, 권복규, 이순남, 한재진, 정재은(2008). 우리나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인문사회의학 교과목 운영현황 및 학습내용 분석.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2), 133-144.
- 오영섭, 김영순, 왕금미(2018). 이야기치료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학치료**, 48, 41-74.
- 이민용(2017). **스토리텔링 치료**. 서울: 학지사.
- 황임경(2013). 의료인문학교육에서 질병체험서사의 활용 방안.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5(2), 81-88.
- 황임경, 김호연(2013).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그 시론적 탐색. **의사학**, 22(2), 357-388.
- 허재경(2009). 성찰중심 수퍼비전을 통한 상담자발달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Arntfield, S. L., Slesar, K., Dickson, J., & Charon, R. (2013). Narrative medicine as a means of training medical students toward residency competencie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91(3), 280-286.
- Burns, G. W. (2011). 이야기로 치유하기: 치료적 은유 활용[*Healing with stories: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김춘경, 배선운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에 출판).
- Charon, R. (2001). Narrative medicine: A model for empathy, reflection, profession, and trust. *JAMA*, 286(15), 1897-1902.
- Charon, R. (2007). What to do with stories: The sciences of narrative medicine.

- Canadian Family Physician*, 53(8), 1265–1267.
- Columbia University. (2019, Dec 30). Columbia Narrative Medicine. Retrieved December 30, 2019, from <https://www.narrativemedicine.org/about>
- DasGupta, S. & Charon, R. (2004). Personal illness narratives: using reflective writing to teach empathy. *Academic Medicine*, 79(4), 351–356.
- Fleming, J. (1953). The role of supervision in psychiatric training.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17, 157–169.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3), 139–141.
- Kissler, M. J., Saxton, B., Nuila, R., & Balmer, D. F. (2016). Professional formation in the gross anatomy lab and narrative medicine: An Exploration. *Academic Medicine*, 91(6), 772–777.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 Small, L., Feldman, L., & Oldfield, B. J. (2017). Using narrative medicine to build community across the health professions and foster self-care. *Journal of Radiology Nursing*, 36(4), 224–227.
- White, M. (2010). 이야기치료의 지도[*Maps of narrative practice*]. (이선혜, 정슬기, 허남순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에 출판).
- White, M. (2012). 부부치료와 갈등해결을 위한 이야기치료[*Narrative practise and exotic lives: resurrecting diversity in everyday life*]. (최민수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에 출판).
- White, M. (2014). 내러티브 실천: 마이클 화이트와의 대화[*Narrative practise: continuing the conversations*]. (김유숙, 최지원, 안미옥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1에 출판)

## *ABSTRACT*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Introducing the Teaching Model of Narrative-based Humanities Therapy

Youngsoon Kim (Professor, Inha University)

Youngsub Oh (Researcher Professor,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teaching model of humanities therapy using narrative in order to foster pre-clinical therapists. This study used Rita Charon's narrative medicine as theoretical background to derive a teaching model of humanities therapy, and formulated a five-step plan in the fifteenth week. The class used interview narratives of married migrant women who have experienced divorce and become independent. The research method was a qualitative case study, which analyzed reflection journals and assignments of graduate students who took classe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In the first phase of introduction, participants understood the power and nature of narratives. Second, in the first stage of development, participants deepen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similarities and specificities of married migrant women's emotions. Third, in the second stage of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engaged in the research and discussion as a group working towards their journal dissertations and experienced solidarity among one another. Fourth, the participants deepen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client and expanded their background knowledge. In the final stage of reflection, the participants confirmed individual growth of narrative ability and formed an academic and treatment communit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seen as a useful case and teaching model for nurturing medical professionals, clinical therapists, counselors, and researchers

Key words: narrative, humanities therapy teaching model, learner's experience,  
narrative medicine